

배포일 : 2023. 8. 13.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2023 아트경기×제로베이스》 개최	5쪽	있음	www.ggcf.kr	부서 : 예술진흥실 담당 : 이지희 전화 : 031-231-7233

## 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2023 아트경기×제로베이스》 개최

- ▶ 경기문화재단과 서울옥션이 협업, 2023 아트경기 작가 9인의 작품 85점을 온라인 경매
- ▶ 8월 12일(토)부터 8월 16일(수)까지 프리뷰 전시 개최, 오는 8월 17일(목) 14:00까지 경매 진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경기지역 시각예술작가 발굴과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서울옥션과의 제휴를 통해 오는 17일(목)까지 《2023 아트경기×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

서울옥션이 2019년 런칭한 '제로베이스'는 신진작가의 미술품 경매 시장 진출을 위해 기획된 온라인 경매 사업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0원부터 응찰을 시작하는 게 특징으로, 시작가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작가와 컬렉터의 개성이 존중받고 오로지 작품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제로베이스 경매에는 2023 아트경기 작가로 선정된 9인(고은주, 구서이, 김희연, 김희진, 나광호, 범진용, 양승원, 임철민, 전은진)이 참여하며, 구작부터 신작까지 총 85점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다. 또한 이종기, 최혜지 작가가 초대작가로 별도 참여한다.

경매는 서울옥션 홈페이지 내 '제로베이스 경매' 세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로그인 후 무료로 응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8월 12일(토)부터 16일(수)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프리뷰 전시를 통해 이번 경매에 출품된 작품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경매는 오는 17일(목) 오후 2시에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옥션 홈페이지(www.seoulauktion.com) 및 아트경기 홈페이지(artgg.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아트경기 담당(031-231-7237~8)



## 《2023 아트경기×제로베이스》

○ 행사기간 :

- 1) 온라인 경매: 2023. 8. 11.(금) 10:00 ~ 8. 17.(목) 14:00
- 2) 프리뷰 전시: 2023. 8. 12.(토) 10:00 ~ 8. 16.(수) 19:00

○ 행사장소 :

- 1) 온라인 경매: 서울옥션 홈페이지(www.seoulauction.com)
- 2) 프리뷰 전시: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4)

○ 참여작가 : 고은주, 구서이, 김희연, 김희진, 나광호,  
범진용, 양승원, 임철민, 전은진

○ 주 최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 관 : 서울옥션

작가	작가별 주요출품작	
<p><b>고은주</b> Go EunJoo (b.1983)</p>	 <p>&lt;창성부표&gt;, mineral color, gold leaf and silver leaf on silk mounted on wooden panel, 119×92cm, 2023</p>	<p>고은주는 '불안'이라는 정서에 주목하여, 불안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전통적 기원(冀願) 문화인 부적, 설위설경(設位說經), 지화(紙花) 등을 예술적 도구로 차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과 대칭적 구도, 오방색의 조화로움을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불안의 시대를 사는 작가 본인을 비롯한 현대인들의 삶을 위로하는 불안의 해결책으로 승화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잠시, 행복&gt;(갤러리 DOS, 2023), &lt;Hidden Flowers&gt;(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2021) 등이 있으며,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삼성테스코, 화이자 제약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p>
<p><b>구서이</b> Koo SeoYi (b.1984)</p>	 <p>&lt;작은 꽃 2&gt;, oil on canvas, 33.4×24.5cm, 2023</p>	<p>구서이는 '풍경', '현존', '명상'을 키워드로, 걷다 마주한 순간들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캔버스에 옮길 때는 풍경을 마주했을 때의 비일상적인 감정과 깨어남을 느꼈을 때의 감각이나 반응, 혹은 에너지의 변화 등 그 경험의 순간을 화면에 담고자 한다. 동시에 그러한 감각의 총체적 경험을 회화의 촉각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고양우수작가공모전 : 고양아티스트365&gt;(고양아람누리 해반이터, 2022)가 있으며 &lt;The Expansion of Time&gt;(일산 롯데갤러리 Spaziower, 2023), &lt;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 특별전 3 : 바람과 흔적 플래그 아트&gt;(정북동 토성, 2019)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p>
<p><b>김희연</b> Kim HeeYon (b.1985)</p>	 <p>&lt;구멍&gt;, acrylic on linen, 33.5×53cm, 2022</p>	<p>김희연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평범한 풍경, 그리고 인간이 남긴 인위적인 흔적과 자연이 공존하는 양상을 회화로 재현한다. 대상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색감의 대비를 극대화하여 평범한 장면을 극적인 장면으로 전환하며 외롭고 공허한 감수성과 이질적으로 겹쳐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김희연 개인전&gt;(오스갤러리, 2020), &lt;SoundlessDialogues&gt;(아트비트 갤러리, 2018) 등이 있으며, 금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의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p>

<p><b>김희진</b> <b>Kim HeeJin</b> <b>(b.1987)</b></p>	 <p>&lt;공든 탑 2&gt;, color on silk mounted on wooden panel, full 200×72.6cm, 2016</p>	<p>김희진은 아파트가 갖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한국화 재료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직접 찾아가 사생하고, 이후에 색채나 형태, 혹은 설치 방법에 변화를 주어 대상만의 서사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보편적 풍경이 되어버린,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아파트의 모습을 그 만의 스토리나 조형적 특성에 집중하여 다양하게 풀어낸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아파트 가변 설치&gt;(갤러리 그리다, 2022), &lt;아파트, 사선의 그림자&gt;(아트레온 갤러리, 2020), &lt;far_apart&gt;(갤러리 너트, 2016) 등이 있으며, 서울 영은미술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p>
<p><b>나광호</b> <b>Na KwangHo</b> <b>(b.1979)</b></p>	 <p>&lt;Quinces&gt;, oil on canvas, 72.7×91cm, 2017</p>	<p>나광호는 에디션 개념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판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식물에 관심이 많으며, 식물을 소재로 도감[圖鑑] 작품을 제작한다. 자연의 색감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실크 스크린 판화 작품을 출품하였고, 판화와 회화를 넘나들며 작업 중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福媿圖(복음도)&gt;(이응노의 집, 2022), &lt;겨울 호랑이 냄새&gt;(뮤지엄 SAN, 2019) 등이 있으며, 뮤지엄 SAN,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p>
<p><b>범진용</b> <b>Beom JinYong</b> <b>(b.1977)</b></p>	 <p>&lt;풍경&gt;, oil on canvas, 45.5×53.2cm, 2015</p>	<p>범진용은 꿈속에서 나오는 인물, 사건, 풍경 등의 희미한 이미지를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근접하게 표현하거나 비슷한 사건을 재조립해서 재현한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상 속 풍경 또는 버려진 장소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풀들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작품들을 그려낸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잠 못 들고&gt;(리각미술관, 2019), &lt;빈 곳에서의 폭동&gt;(청주창작스튜디오, 2018) 등이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서울시립박물관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p>
<p><b>양승원</b> <b>Yang SeungWon</b></p>	<p>&lt;Proto_Overwrite #2&gt;, gelatin silver print, 35.5×27.9cm, ed.1/1, 2022</p>	<p>양승원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실과 가공의 경계를 흐드는 유사 이미지로 인식론</p>



<p>(b.1984)</p>		<p>과 사진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마주한 상황이나 풍경을 인식하는 과정, 당대 사회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며 당연히 여겨지는 인식의 과정에 균열을 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확장된 개념으로 실재와 허구의 접점이 만들어내는 이질성을 포착하기도 하고, 자연과 모방의 간극에서 볼 수 있는 물질성의 차이, 지역과 장소의 표피적 이해에서 발생한 맥락이 거세된 현실의 풍경에 의문을 가지며 작업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뒹어쓰기&gt;(N/A, 2022)와 &lt;글림스&gt;(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 2021) 등이 있다.</p>
<p>임철민 Im CheolMin (b.1988)</p>	 <p>&lt;계 1&gt;, Indian ink on Korean paper mounted on wooden panel, 70×140cm, 2021</p>	<p>임철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그의 회화는 자신을 명백히 인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과 본질에 기반한 좌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개인과 세계의 형태 및 관계를 중첩되고 어두운 풍경으로 어렴풋이 드러내는 회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모호한 풍경으로 비유하며, 존재하지 않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끝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대부야행大阜夜行&gt;(북촌전시실, 2022), &lt;창백한 푸른 빛&gt;(갤러리 3안, 2020) 등이 있으며 정부미술은행, 서울시, 경기도미술관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p>
<p>전은진 Jeon EunJin (b.1985)</p>	 <p>&lt;Nocturnal Eyes&gt;, oil on linen, 145.5×112.1cm, 2022</p>	<p>전은진은 캔버스나 종이에 느슨한 재현의 방식으로 동시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장자리 풍경을 표현한다. 자연적인 것과 인공물이 뒤섞여 시각적인 충돌을 만들어 내는 현장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수집한다. 이를 평면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첩하여 다듬는 방식 보다 붓의 꺾적이 드러나도록 물감의 뭉침과 자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는 회화의 유희적 면모를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다. 주변을 어슬렁 거리는 호기심, 물감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색상과 촉감 등을 작업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lt;초록파편으로&gt;(갤러리 소소, 2022), &lt;열, 틈, 조각&gt;(소금나루 작은미술관, 2020) 등이 있다.</p>